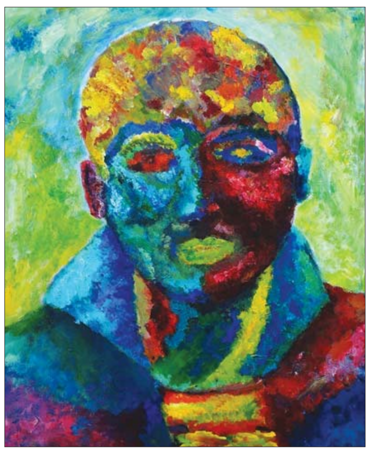
서점례 '사랑과 평화를 드립니다'



김현욱 '자화상'

김쌍순 '등이 가슴'

▶ 전북도립미술관, 도내 장애인 미술가 초대 '미술로 나를 말한다' 전

'그림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지역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장애인 미술가 6명을 초대해 '미술로 나를 말한다' 전을 갖는다.

이들의 작품은 제도권 미술교육에 길든 관습적으로 오염된 조형언어를 쓰지 않기에 낯선 표현기법이 투박해 보이지만 삶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그림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감각적인 기술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거침없고 자유로운 미술적 발언이 매력적이다.

외출을 할 때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만 하는 척수 1급 장애인 장유는 화려한 꽃신을 신고 평범한 외출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마발사지 등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점례는 사회적인 약자이면서도 더 어두운 곳에 희망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창공을 날고 있는 새의 형상에 담았다.

제도권 미술교육 등 기존 틀 얽매이지 않는 거침없고 자유로운 미술적 발언 표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굴곡진 삶의 여정 바탕으로 '차이' 생산

시각장애인 김현욱은 화려한 원색을 잔기교 부리지 않고 순수한 필법으로 덧칠하여 '자화상'을 그려냈다. 원색의 병치와 대비가 내면의 번뇌와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허영숙은 바흐의 'G선상 아리아'를 형상화 했다. 첼로는 높은음자리표로, 첼리스트는 최대한 간결한 선으로 묘사하며 아름다운 선율에 접근하고자 한다. 배경의 흐드러진 꽃잎들이 선율을 타고 흐르는 듯하다.

김쌍순은 10살배기 '등이'라는 이름을 가진 손녀의 배려와 사랑을 표현한다. 화폭에는 몸이 불편한 할머니의 모습이 목발에 투영돼 있고, 이를 보살피듯 어린 손녀는 우산으로 받히고 있다.

손옥자의 '회몽'은 현대미술에 대한 특강을 한 후 간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강사의 뒷모습, 의족을 부각한다. 이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삶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는 메시지가 내재돼 있다.

장석원 관장은 "이들의 작품 활동은 심리치료나 사회 적응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미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는 너무나 당연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굴곡진 삶의 여정을 바탕으로 '다름'이 아닌 '차이'를 생산해 내는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5일~17일 연다. /정해은 기자

순창서 시 낭송문화 '꽃 핀다'

군, 7일부터 매주 금요일 문예교육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오는 7일부터 시 낭송 및 창작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혀 문학을 사랑하는 군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 낭송 및 창작교실은 '2017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순창향토회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 주관한 사업으로, 문예회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이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융?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월 순창군과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컨소시엄을 통해 시낭송 및 창작교실 프로그램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해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063-653-566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어린이 그림 공모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가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공모'를 진행한다.

'쿵짝쿵짝 알록달록 소리그리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소리'를 독창적이고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해 표현하면 된다.

공모전은 전국의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며 출품작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 '전라북도교육감상'을 수여한다.

소리축제는 그간 '어린이 소리축제'와 '찾아가는 소리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전통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소리축제의 이러한 교육적 측면의 가치와 기여도를 인정해 어린이 그림공모 대상 수상자에게 '전라북도교육감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그림공모'를 통해 접수된 모든 출품작은 축제 2주 전부터 진행되는 '미디어 체험전시'의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벚꽃의 계절… 정읍서 벌어지는 특별한 '봄의 무대'

'달의 여인 벚꽃길 거닐다', 7일 공연

벚꽃의 계절 4월,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과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달의 여인 벚꽃길 거닐다'가 오는 7일 오후 5시 정읍사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 공연된다.

시립정읍사국악단(총감독 왕기석)에서 기획·공연하는 이번 작품에서는 정읍에서 태동한 상춘곡과 정읍사에 깃든 정읍의 정서를 국악단원들이 전통음악과 춤사위, 창극으로 선보인다.

구성은 크게 여섯 무대로 꾸며진다.

첫 무대는 '수제천'이 연주되는 가운데 무성서원과 정읍사공원, 내장산 등 정읍의 명소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정읍의 풍광이 영상으로 펼쳐지며 상춘곡의 저자인 불우헌 정극인(1401년~1481년)이 태인으로 낙향하면서 백제로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떠난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정읍사의 망부상 여인이 깨어나 남편의 무사귀가를 염원하는 노래를 부르면 남편이 돌아오고, 둘의 영원한 사랑을 아름다운 꽃 춤으로 선보인다.

셋째와 넷째 무대에서는 마을에서 일어난 불길한 일로 부부가 다시 이별하고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망부상이 된다.

이어 다섯째 무대에서는 정극인이 현실로 돌아오고, 마지막인 여섯째 무대에서 꽃이 만발한 봄의 정취를 담은 영상을 배경으로 상춘곡을 노래한다.

작품 구성과 총감독은 왕기석 국악단장, 대본 각색과 연출은 국립창극단 어린이 창극 '효녀 심청'과 '흥부놀부' 등을 다양한 작품을 맡았던 류기형씨, 음악지휘는 강행복씨가 맡았다.

여기에 수준 높은 공연으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립정읍사국악단의 창극부와 무용부, 연주부를 비롯 마당극패 '우금치'와 대금의 권민환, 소금 방준형, 해금 조정현과 김신희 등 객원들이 함께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청년문예대학 참가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연기자를 지망하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기 아카데미'(청년문화예술대학)를 운영한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전북지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2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전북예술회관 '구름'과 '공연장'에서 열린다.

교육은 연기의 기초훈련, 대본 분석하기, 캐릭터 만들기, 상황별 연기법 등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진행된다.

영화배우 안성기·이영하·오광록, 영화감독 김의석·허진호·하명중, 영화배우 겸 연극배우 이영란, 전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민병록 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 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1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19일 오후 3시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떴다! 심청'의 개막과 함께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명배우 안성기 씨의 특강을 마련한다. /정해은 기자